

# ☆ 서정문학만 알면 ...

서정문학의 뜻만 알면

늘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시가 공부와

현대시 공부가 바로 해결된다....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란다....

오늘도 공부방법을 바꾸지 않았니 ?

그렇게 한 주 가고 .....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짜 화면에 빠져....

또 한 달 지나가고.... 그럴수록 너 겁나잖아?.... 그렇지...!!

자신에게 솔직해봐.....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아지겠니 ?

바꿀거라면 작년에 이미 바꾸고도 남지 않았을까 ?

남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남다른 오늘을 보내지 않는데....

왜 너는 교재, 학원, 집, 선생님, 독서실 그런 세상밖만 할거니 ?

#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 ④ 번째 ] 시 문학 분석으로 또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④번째 칼럼을 읽기 전에 ①, ②, ③번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지난 시간을 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수업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흥미와 이해를 위해 다소 과장과 비약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 시(서정문학)를 만나면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 당연히 대상을 찾습니다.

= 좋아.... 크게 따라한다 !!!! 시를 만나면 ?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 !! 바로 시적화자가 바라다 보는 대상을 찾습니다.

= 그것만으로 되겠나 ???

= 아닙니다. 각 줄마다 숨겨진 대상에 대한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를 찾아  
야 합니다.

= 오케이.....바로 그거면 무조건 통과야..... 이제 가보자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시문학 행동강령입니다.

오늘은 2015년 기출 B형의 나머지 시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어떻게 공부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학생과의 대

화체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품 분석 후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나려간다.

자, 우리는 썩판 처음 보는 시를 만난 겁니다.

이 시에 대해 알고 있다해도 어차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는게 훨씬 편할겁니다.

우선 시를 만나게 되면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그런 바보 짓 하지 말라고 했죠 ?

(...음...이 시가 EBS에서 나오던가.....? =10초 흘러감)

(...학원에서 지난번에 배웠던거 같은데.... 아, 배운 거 기억은 하는데 ... 이게 누구 시더라....? = 또 10초 20초 흘러감)

기억나면 뭐 할 건데요 ?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풀면 모두 맞나요 ? 원칙대로 하세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자 우리의 행동강령이 뭐였죠 ?

시를 만나면 “대상”을 찾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아라.... 였죠?  
기억나시죠 ?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나려간다.

1연입니다.

1행 = 대상은 아직 모르겠지만 어딘가....흙냄새 납니다.

2행 = 대상은 아직 모르겠지만 어딘가....강바람 붐니다.

3행 = 그 강바람 속에 짐승 소리 같은 것이 있나봅니다.

4행 = 얼음장이 깨져서 강물 위로 떠나려 갑니다.

===== 지금 시적화자는 어딘가 강물을 보면서 바람소리와 강변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직 모르겠고....특별히 정서표현도 없습니다. 단지 감각적 표현으로 대상을 흐릿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2연입니다.

1-2행 = 대상은 아직 모르겠고 시적화자의 태도는 나옵니다. 나룻가에 서성입니다. 그곳에서 바람도 맞고 냄새도 맡고 강물도 보나 봅니다.

3행 = 아직도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변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시적화자의 정서를 담은 시라면 따듯하다라는 감각적 표현 속에 어느 정도 정서가 녹아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 2연에서도 대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루터에서 사람들 손을 잡고 행복해 하는 시적화자만이 보입니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3연입니다.

1행 = 시적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 있습니다. (나루터)

2행 = 지난날의 꿈을 얘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아무래도 지난날의 꿈을 잃어버렸나봅니다. )

3-4행 = 주인집 양반도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려줍니다. 사실은 졸려서 눈물날 수도 있고, 지루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인데...그만큼 시적화자가 울고 싶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이입된 감정이입니다.

===== 3연에서도 대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 손 잡고 행복해 하고 .... 지난날의 꿈 얘기 나눌 사람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감정(정서)과 눈물나는 태도는 잡히기는 하는데...아직은 약합니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4연입니다.

1-2행 = 고향 가까운 나루터 주막근처 산기슭에는 조상님들이 잠을 자는 것으로 보아서 대상은 대략 고향 옛집에 온 거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남의 동네에 가서 묻혀 있지는 않을 것이고....

3행 =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설레는 바람.... 감정이입이죠... 그냥 부는 바람인데 시적화자의 감정이 지금 설레임입니다. 분명 고향에 왔기 때문에 설레임이 앞서는데 웬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또 앞서고.... 고향 사람같은 사람들의 손을 만지면 행복한데.... 꿈을 나눌 사람들이 없다는 느낌..... 이제 대략 시의 전체 열개가 보입니다.

===== 4연에서 대상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온 설레임과 따듯함과는 달리 안타까움과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겁니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5연, 6연입니다.

1-3행 = 여기 저기 떠도는 장사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4-5행 = 어떤 특정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적화자는 고향 근처에 왔는데 설레고 행복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기가 찾던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꿈을 나눌 사람도 없고... 술 한잔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 정리하자면 대상은 고향입니다. 정서는 그리움, 설레임, 행복함...등등.... 하지만 꿈에 그리던 그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 안타까움이 주된 정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찾아냈다면 아주 정말 잘 한 겁니다.... 짹짹...

===== 자...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주입식으로 시를 가르쳤나요 ? .... 한 줄 한 줄 읽으며 서정문학의 원리대로 분석을 했죠 ?.... 앞에 컬럼 모두 고전시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께 미리 배경지식을 설명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을 아직도 문학 때문에 그것도 고전문학 때문에.... 이러실 겁니까 ?....문학이 약한 친구가 매삼문 어찌고 저찌고... 마닿이 어찌고 저찌고.... 박X일 인강강사 문학이 어찌고 저찌고.... 결국 그렇게 떠들던 한 달 전 그 친구들 ....지금 뭐 합니까 ?.... 본인 계획대로 문학에서 자유로워

졌나요 ? 아니면 아직도 묘한 비범을 찾아 다니며 거짓과 과장으로 꾸며진 품평에 날개짓하고 춤을 추며 찾아다니나요 ? 자...지나친 독설은 또 저에게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 여기쯤에서 자제할게요.....!!

이제 (나)로 갑니다.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해어름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남은 집」 -

= 시적화자의 대상은 귀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고향 또는 고향의 모습입니다. 오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옆집 사람들 얘기하듯이 하는 걸로 봐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면 기뻐 넘치는 감정이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고향집은 차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걸으



로보면 분명 호로자식이죠...)

- = 계속 방구석 얘기...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좋아서 불부터 지피고, 동생들은 반가워서 날뛰는데...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
- = 무뚝뚝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도 만아들 왔다고 다리병신 오리를 잡아오는데...(아버지의 태도속에는 아버지의 정서가 숨어있다는 거 아시죠 ? 어머니..동생들 모두.... 아시죠 ?...그런데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아빠, 엄마, 동생 아무리 반가워도 그건 정서가 되지 못합니다. )
- =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감정이입이라는게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은 최대한 숨기고 억제하지만 가족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설마 아무리 호로 자식이라도 고향에 갔는데 저런 모습으로....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저런 시까지 쓰겠습니까 ?..... 그러니 감정이입을 통해 본인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리하면....대상은 고향이고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최대한 숨기고 있지만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움을 나타냈다고 보면 됩니다.

===== 여러분은 오장환 시인과 최두석 시인에 대해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습시다. 또 아무것도 주입받지 않았고요... 선생님도 자습서 읽어주고 필기해주는 앵무새가 싫어서 한 줄 한 줄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분석력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문제 설명은 앞 칼럼에서 많이 했으니 생략 (궁금하면 앞에 거 확인하세요.)

=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죠 ? 자...봅시다..

= 목적어가 주어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이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가), (나)가 주어부로 나갑니다.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끊어 읽은 부분까지 본문에 나오죠 ? 친근감의 정서도 맞죠 ?

= (나)의 화자도 낯선 느낌 ...맞죠 ? ..빨리 갑시다...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가)에서 조상님 무덤은 나와도 조상님의 권위는 나오지 않았습니  
다.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  
할 수 있겠습니까 ? .... 당연히 못하죠... 틀렸죠 ?...

= 또 가난한 고향에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언제 그곳을 탈출하고파  
했습니까 ?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같은 정서는 당근 없습니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  
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가) 세상이 변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각박한 인심이 여전하다는 애

기가 어디 있습니까 ? 고향에 대해 안타깝고 슬플 뿐입니다.

= (나) 고향에 와서 무슨 인심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까 ? 고향가면서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주시겠지 ? 라는 기대를 하면서 역시 인심은 변하면 안되는데.....그렇게 하는 겁니까 ? ㅋㅋ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고향 근처에 온 것으로 봐서 떠돌아 다닌 거 정도는 맞습니다.

= 아버지의 모습... 맞습니다.

= 그러나 (가)를 통해서도 그 옛날의 고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감이 맞지만 (나)에서 그 옛날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감이 생긴다는 것은 푸하하하하 우습네요....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 무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 ?...(가)에 어디에 농촌 ?????...그리고 정서가 희망이었나 ????

= (나) 무슨 산업화??? 또 희망 ??? 푸하하하하 ㅋㅋ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 설명 지나갑니다.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쓸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3번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 감상 앞에 (가)와 (나)를... 목적어가 있네요... 상대는 그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목적어가 주어부로 나가야 겠네요...
- = 주어부 // ~~~~~ (이곳 지렁이 부분이 바로 (보기) 내용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보기의 내용이 아닌 것이 나올 경우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도 3점짜리 다 맞는 엄청난 스킬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 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보기 내용 참조하면서 선지 봅시다...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역시 (가)로 시작합니다. 끊어 읽은 부분까지는 (가)에 나오니까 ? 오히려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 일단 틀립니다.

= 또 타인과의 조화.... 이런 표현은 어디를 봐도 없죠 ??.... 답이네요.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앞부분 (가) 설명 맞죠 ?

= 뒷부분 [보기 박스]에 나오죠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나머지는 여러분이 끊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그 어려웠던 2015년 B형의 서정문학을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비문학처럼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학을 어려워한 친구도 많았습니다....

자...지금까지...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주입식으로 수업하는 부분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시인에 대해 설명하고 .... 시가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혹시나 불필요한 필기 내용이 있었나요 ?

수능은 능력을 시험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있다는 가정아래.... 누가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끝인 지점에 들어가느냐....를 테스트하는 아주 공평하고 타당한 시험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몇 몇 사람들....

시문학의 상위개념은 서정문학입니다.

서정문학은 정서를 서술한 글입니다. 즉 대상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적은 글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 하나로 정상적인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출제한 것이 바로 평가원의 출제 의도인데 언제부턴가 그런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알 턱이 전혀 없는 저급한 자들로부터 평가원이 공격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사문학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